

물가잡아야 경기침체 막는다...정부, 인상자제 전방위 압박

통신·금융에 이어 주류·식품업계까지 압박
‘상저하고’ 전환 위해 ‘물가 잡기’ 총력전
한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하며 속도 조절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이어 주류, 식품 등 서민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상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 전방위적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민간 자율에 시장을 맡기겠다는 기조를 일관해왔지만 오르는 물가 앞에 직접 개입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1일 정부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식품업계에 만나 상반기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며 실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농식품부도 서민 물가 잡기에 나선 것이다. 오르는 통신비와 금융비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27일 통신 3사 및 은행권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융비용 등 4대 분야에 대한 경감 대책을 내놓은 후 관계부처별로 이뤄진 후속

조치들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상반기 고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져 상반기 경기 둔화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안정 후 하반기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행사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면 하반기에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이 물가상승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21년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p) 인상했는데, 한은 계량모형 분석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는 지난해 -0.4%p에서 올해는 -1.3%p로 커질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나, 물가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품목별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부의 개입이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시장에 무리가 뒀어도 신호를 주고 있다”며 “물가 상황이 비정상적인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반기에 경기가 풀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개입을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는 통신과 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나 과도한 통제라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과점 산업의 경우 물가 상승기에는 마켓파워를 이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서 도덕적 설득도 할 수 있고, 규제나 감독 등을 활용해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정부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 외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식품과 주류업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나 통신과 같이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하고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기는 어렵다. 가령 은행은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기능에 대한 독점력을 정부가 부여해 주고 있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주류업계와 식품업계에 대해 가격 동결을 요청하는 것은 타

당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부의 전방위로 안정세를 예측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고 봤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가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어 정부의 예측대로 3%대 물가 안정이 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마스크 벗고 백화점 가볼까” 메이크업쇼부터 립컬러 컨설팅까지

‘실내 노마스크 시대’ 백화점, 화장품 체험 행사 풍성



실내 노(NO)마스크 시대를 맞아 주요 백화점들이 다양한 화장품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백화점 내 메이크업 시연 및 강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전면 중단됐는데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리오르닝(경제활동 재개)에 신학기 개강 등이 겹치며 메이크업 수요가 늘자 이를 겨냥한

체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2주년을 기념해 5일까지 ‘메가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입생로랑·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총 34개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기간에 신제품 출시 행사·메이크업쇼·뷰티클래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1층 정문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명품 화장

품 브랜드 샤넬의 스킨케어 라인 ‘넵버윈드샤넬’ 메이크업쇼를 진행한다. 후문에서는 5일까지 펜할리콘스 포트레이트 컬렉션 ‘더치스 로즈’ 팝업 스토어를 열고 스카프에 고객이 원하는 향기를 입혀주는 스페셜 시향·향수 각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화장품 브랜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대별 10%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구매 혜택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4년 만에 ‘립스틱 페어’를 진행한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립스틱 페어’에는 총 16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 브랜드는 ‘입생로랑’, ‘조르지오 아르마니’, ‘발렌티노 뷰티’, ‘맥’ 등으로 페어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다. 이번 립스틱 페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후 처음 선보이는 행사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함께 준비했다. 우선 ‘맥’, ‘조르지오 아르마니’, ‘바비브라운’에서는 3월 한 달간 선착순으로 무료 뷰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맥’에서는 고객에게 맞는 립스틱 색상을 찾아주는 ‘립 컬러 컨설팅’ 서비스를,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는 신상 립 제품을 활용해 간단하게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는 ‘메이크업 터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기간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 ‘랑폼 뉴(NEW) 클리피프 프로-솔루션 론칭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팝업 스토어를 찾는 고객들은 피부 진단 서비스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김재환기자

반도체·중수출 고전...5개월째 수출감소

산업부, 2월 수출입동향 발표...수출 66.3조 7.5% ↓

지난달 수출과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자동차 부문에서 역대급 수출고를 이뤘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실적이 4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환한 뒤 5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54억 달러(약 73조4050억원)를 기록했다. 3대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약 7조225억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차·이차전지 역대급 수출에도...반도체 44% ↓

지난달 수출 실적은 감소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월(463억 달러) 대비 약 40억 달러 증가하면서 월 수출 규모 50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그럼에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감소한 배경은 기저효과도 한몫했다. 지난해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한, 역대 2월 중 최고 실적(541억6000만 달러)이란 점에서다. 지난달 실적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이차전지 부문에서 크게 성장한 반면 여전히 반도체를 포함 정보기술(IT)품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달러(약 7조42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다. 이는 모든 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이차전지는 13.0% 늘어난 44억5000만 달러(약 5조8962억원)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일반기계도 미국·유럽연합(EU)·중동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에 중수출 감소 계속...반도체 비중 폭

지역별로는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과 EU, 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미국과 EU 수출은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 IT 부문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풀린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5%(44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것이 지난달 수출 감소세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둔화와 수지악화가 주요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일본도 지난해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란 설명이다.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 비산유 제조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미국에서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와 일반기계 등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중동은 자동차·차부품 외에도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철강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늘어났다. 반면 우리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감소세가 계속됐다.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9.0%), 디스플레이(43.5%), 유화(29.5%) 등 무선통신을 제외하고 다수 품목에서 감소했다. D램 등 반도체 주요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33.4%에서 27.0%로 줄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에...수입, 전년 비 3.6% ↑

앞서 무역수지 적자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였던 수입 증가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수입은 에너지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월 기준 수입 증감률은 지난 12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이달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전년보다 근소한 차이로 줄었다 하지만 동절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수입은 증가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지난달 153억 달러(약 20조2725억원)를 상회하는 큰 수입 규모를 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7% 늘어난 수치다. 다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그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전월과 비교하면 35억 달러(약 4조6375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대부분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전월보다 개선됐지만 무역적자 1년째...2월 7.2조 적자

지난달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 수입 증가에 더욱 악화됐다. 53억 달러(약 7조22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1년째 적자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면서 무역적자 폭은 1월(127억 달러)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축소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둔화와 수지악화가 주요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일본도 지난해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란 설명이다.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 비산유 제조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봄 여행 수요 잡는다...SSG닷컴, 여행 ‘라방’ 편성 확대

‘럭셔리 국내 호텔’·‘해의 휴양지 패키지’ 두 키워드 중심

SSG닷컴이 2일부터 2주간 여행 카테고리 라이브 방송 편성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럭셔리 국내 호텔’과 ‘해의 휴양지 패키지’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혜택 경쟁을 펼치며 3월 여행 수요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2일 오후 9시에 ‘보라카이’ 라이브 방송에선 휴양시설로 인기가 높은 ‘해안 가든 리조트’ 패키지를 준비했다. 선착순 할인 혜택과 1분 이상 시청 고객에게 제공하는 5% 추가 할인 적용 시 최대 할인이 54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방송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아일랜드 호핑 투어, ‘해안 리젠스’ 리조트 중식 뷔페 이용권

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6일 오후 8시에는 아트테인먼트 북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상반기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에서는 디럭스 객실 패키지를 선착순 핫딜 가격에 선보인다. 리조트 머니 6만원이 포함된 ‘1박 패키지’, 리조트 머니 3만원과 조식 1회 이용권(2인)으로 구성된 ‘2박 패키지’가 대표 상품이다. 13일 오후 8시에는 일본 인기 휴양지 ‘오키나와’ 패키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상품, 항공권 및 숙박만 포함한 에어텔 상품을 준비했다. 14일 같은 시간에는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



데리조트 부여’ 객실 판매 라이브 방송을 선보인다.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한 ‘캐릭터룸’을 라이브 방송 최초로 준비해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속초 로티&로리움’, ‘부여 빼빼로룸’, ‘부여 말랑이룸’ 등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서선욱기자